

지역 매아리

부안군, 청소종합대책 추진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1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기간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군은 30일을 설맞이 일제대청소일로 정하여 군공무원,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여 시가지, 주요관광지, 터미널 등 골목 구석구석까지 버려진 쓰레기 대청소를 실시했다.

생활폐기물은 설날 당일인 2월 5일을 제외하고 정수처리 할 예정이며 청소상황실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며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및 적정처리해 민원제도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음식은 먹음만큼만 장만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연휴기간동안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읍시가 구제역과 AI 차단을 위한 방역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진섭 시장은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귀성객은 축사 출입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는 매일 구제역과 AI 임상증상 관찰 활동으로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관련해 시는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시장을 분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마련했고,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의 협조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귀성객 출입이 많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방문자제 홍보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배부하고,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과 오는 7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과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올해엔 군민소득 향상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수소산업 기반구축·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2019년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1일 열린 1월 중 연석회의에서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구축과 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2019년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까지 이창득심 연초방문을 진행한 결과 군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가 바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며 "올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수소분야 집중 투자 발표에 따라 부안군 역시 고분자 연

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조성 및 실증사업 MOU를 체결하고 수소산업 추진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 수소산업 육성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 중이고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올해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및 202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에 청년과 농업 전후방 산업 유입 효과가 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및 청년 농촌보급자리 사업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활 SOC사업 투자 확대 방침에 맞춰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역내 사용처를 일반음식점과 동네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 부안군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백신일제접종 및 차단방역, 관광객·귀성객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 가져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가 설 연휴기간 심장지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공공의료기관 44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공동주택 6개소 등 66개소의 구비무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대상이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확인, 장비의 작동 여부와 관리상태, 관리대장 비치와 자체점검표 작성유무, 월 1회 점검사항 시스템(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 등록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사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응급 시 장비를 이용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과 사용법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소는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장마비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설 연휴기간 관내 체육시설 무료개방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오늘부터 6일까지 6일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날장사씨름대회와 설 연휴에 맞춰 정읍체육관과 신태인체육관, 관내 축구장, 풋살장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설 연휴 친목의 자리를 마련한다.

설 연휴 동안 체육활동을 통해 귀성객과 시민들이 연휴 피로감을 해소하고, 가족과 지인들 간 소통의 장 조성 기여하고자 무료 개방을 전격 실시하

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무료개방 될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내 체력단련실, 상평체육공원과 신태인.칠보인조잔디 축구장 등 11개 시설이다.

유진섭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훈훈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난을 이겨온 지난 36년 되돌아보다

부안 계화면, 면 승격 36주년 기념 자료 전시회·축하 할인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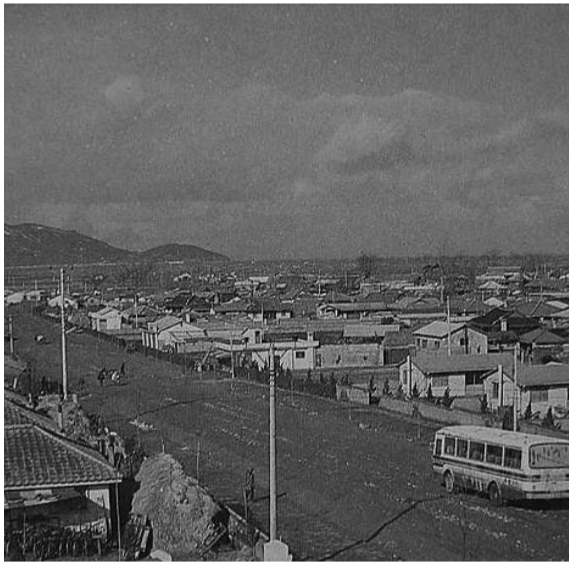
부안군 계화면은 오는 2월 15일 면 승격 36주년을 맞아 계화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계화면 36년사 전시회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면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계화면 관내 상가들은 축하 할인행사를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지난 1983년 2월 15일 면으로 승격된 계화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난을 이겨온 지난 36년을 되돌아보며 주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계화면 36년사 전시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뤄진 간척공사와 섬진강 이주민들의 모습을 면청사 1층 힐링카페 영상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 방송국, 전북도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계화면 관내 16개 상가(외식업소, 이·미용, 쌀·잡곡 판매업소)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고 30% 특별 할인행사를 펼쳐 면 승격의 의미를



부안군 계화면이 오는 2월 15일 면 승격 36주년을 맞는다.

더할 계획이다.

김창초 계화면장은 "계화면사를 전시회는 면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획한 것이니 누구나 오셔서 향수를 느껴셨으면 좋겠다"며 "숨

씨 좋기로 소문난 관내 외식업소와 이·미용, 마트 등이 할인행사를 실시해 면 승격 기념 프로그래밍의 의미를 더해줘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마음 가져야”

유기상 고창군수, 출범 첫 '군민과 공감대화' 뜨거운 호응 속 마무리

고창군 유기상 군수가 지난 16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관내 전 읍면을 순회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2019 군민과 공감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공음면을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고창읍에서 시작한 '2019년 군민과 공감대화'가 마무리 됐다.

이번 군민과 대화에선 고창군 2019년 달라지는 시책(농기계 배달서비스 등), 3대 현안(북부자산업, 황토배기유류, 고수산업단지)에 대한 유 군수와 국·과장들의 설명으로 군민 궁금증을 해결했다.

특히 이번 대화에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사전 시나리오 없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 때마다 각 읍면 사무소에는 주민들이 빠곡히 들어왔고, 남부노소 형식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군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낀 군 발전방향, 공감사항, 시책 등 이번 군민

과 대화에선 모두 15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기계대사업소 기계 반납시간 연장(성송)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따른 보상(대산) ▲다자녀 우대카드제 도입(심원) ▲경로당 평지 출입로 설치(신림) ▲칼매바위, 병바위 주변 관광자원 개발(아산) ▲노후 가로등 LED 등 교체(해리) ▲외국인 노동자 쓰레기 분리수거(흥덕) ▲용산북부자 클러스터단지 활성화 마련(부안) ▲버스정류장 화장실 설치 요청(무장) ▲경로당 운영비 정산기간 탄력운영(상하) 등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공감대화를 마무리하며 "평이근민(平易近民)의 자세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오로지 군민이 원하는 일을 군민이 감동할 때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마음을 갖고 '내한민국 고창시대'를 향해 모두 함께 울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